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3.11.(월) 14:00	배포	2024.3.11.(월)		
담당부서	금융IT안전국	책임자	국 장	백규정	(02-3145-7120)
	금융IT안전총괄팀	담당자	팀 장	이성욱	(02-3145-7125)
	디지털혁신국	책임자	국 장	곽범준	(02-3145-7160)
	디지털혁신총괄팀	담당자	팀 장	심은섭	(02-3145-7162)
	IT검사국	책임자	국 장	진태종	(02-3145-7420)
	검사기획팀	담당자	팀 장	유희준	(02-3145-7415)
	가상자산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현덕	(02-3145-8160)
	가상자산감독총괄팀	담당자	팀 장	안병남	(02-3145-8162)
	가상자산조사국	책임자	국 장	문정호	(02-3145-7100)
	가상자산조사기획팀	담당자	팀 장	진세동	(02-3145-7102)

2024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

1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2024.3.11.(월)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가상자산 사업자,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, 「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*」를 개최하였음

* 불임: 디지털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

- 올해 가상자산 전담부서*가 출범함에 따라 이번 업무설명회는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계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음

* 가상자산감독국, 가상자산조사국 신설('24.1.9.)

- 세션 I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주제 발표*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'24년도 디지털 부문별 감독·검사 방향을 설명하였음

* 한양대 서승현 교수 「양자컴퓨팅 시대의 금융보안」

- 세션 II에서는 가상자산 부문 라운드테이블, 디지털 부문 질의·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업계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

<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요 >

- ☐ (일 시) '24.3.11.(월) 14:00~16:00
- ☐ (장 소) 금감원 2층 대강당
- ☐ (참석자) 금융회사, 가상자산업자, 전자금융업자,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50명
- ☐ (프로그램)

	시 간	내 용	비 고
Pre 세션	14:00 ~ 14:20(20분)	스탠딩 티타임	
세션 I	14:20 ~ 14:23(3분)	인사 말씀	전략감독 부원장보
	14:23 ~ 14:40(17분)	양자컴퓨팅 시대의 금융보안	한양대 서승현 교수
	14:40 ~ 14:55(15분)	디지털금융 감독방향	금융IT안전국 총괄팀장
	14:55 ~ 15:10(15분)	IT 검사 방향	IT검사국 기획팀장
	15:10 ~ 15:25(15분)	가상자산 감독방향	가상자산감독국 총괄팀장
휴식	15:25 ~ 15:35(10분)	휴식 및 이동	
세션 II	15:35 ~ 16:00(25분)	라운드 테이블 (질의 응답 및 주제 토론)	

2.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 말씀 주요 내용

- ☐ 금융감독원 김병철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
 -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新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
 - 이를 위해 ①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, ②금융분야 자율보안 체계 확립, ③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④「가상 자산 이용자보호법」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음

<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>

- ☐ 최근 화두인 생성형 AI의 활용 잠재력이 금융분야가 가장 높은* 만큼, 금융분야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 방안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고

* '생성형 AI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(대한상공회의소)'에 따르면 △금융보험업(10.1%) △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산업(9.6%) △정보산업(8.1%) △도매업(7.1%) △헬스케어 및 사회복지산업(6.7%) 순으로 생성형 AI가 업무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남

- ‘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’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등의 데이터 결합·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음

* 신용정보원·금융보안원이 결합 데이터(약 3.6억명 정보 보유 32개 기관 참여)를 저장·관리하고, 데이터 재사용시 적정성 평가 수행('23.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)

- 또한,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('24.9월)으로 선불업 감독대상 확대*, 소액후불결제업(BNPL)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

* 【선불수단】 (현행)구입 가능한 재화·용역이 2개 업종 이상 ➡ (개정)업종기준 삭제
【등록면제】 (현행)가맹점 수 10개 이하 ➡ (개정)가맹점이 1개일 경우만 해당

-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을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음

<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확립 >

-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(Rule)에서 원칙(Principle)중심으로 변화*함에 따라,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위협을 식별하여 통제하는 자율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

*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(수범사항이 293개➡166개로 축소, '24.2.1. 개정안 변경예고)

-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하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
- 특히, IPO 절차상 오류나 बैं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검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하였음

<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>

- 지난 2월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훈련을 제2금융권, 클라우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여,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

-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딥웹(Deep Web) 등에 불법 유통되는 금융정보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하고
- 유관기관 등과 함께 사이버보안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이버위협
①위협정도 판단, ②대응방안 마련 및 ③금융권 전파가 유기적
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음

<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안착 노력>

- 마지막으로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,
 -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,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,
 -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도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, 효율적인 감독·검사·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음
- 아울러, 현재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시장 신뢰회복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하고
 - 법 시행 이후, 규제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음

3. 향후계획

- 오늘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향후 금융 감독원의 감독·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
 -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<금융IT안전국>**□ 금융분야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마련**

-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종 사이버 위협에 지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이버 위협 탐지·공유체계 구축
- 금융회사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하기 위한 블라인드기반 민관 합동 침해대응훈련 실시하고 정례화 추진

□ 금융IT 리스크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자율보안체계 확립

- ‘규칙 → 원칙’ 중심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세칙 및 해설서 등 관련 규제 정비 실시
-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전환을 위한 정보보안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하고, 과징금제도 실질화 등 사후책임 강화검토

□ 지속 가능한 전자금융업 생태계 조성

- 소액후불결제업(BNPL) 제도화에 따른 이용한도, 연체 관리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경영 승인 세부 요건 마련
- PG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, 무분별한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과 불건전·불공정행위 규제 마련 검토

<디지털혁신국>

☐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

- AI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생성형AI 분야에서의 AI서비스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검토
- 「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(’21.7월)」 운영성과 및 주요국 규제 동향을 종합 분석하여 규율체계 개선방안 검토

☐ 금융데이터산업의 지속가능한(Sustainable) 성장 지원

- 데이터 결합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·감독방안 검토
- 금융분야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행태정보 활용·관리현황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절차 등 내부통제 점검

<IT검사국>

☐ 금융의 디지털화 및 IT리스크 대응 검사 강화

- IT규모에 따른 맞춤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자체 점검·시정토록 유도하고, 점검 결과를 피드백하는 자율시정 체계 구축
- IT감사·거버넌스 체계 및 전자금융사고 억제력·복원력, 제3자 리스크 관리* 등 IT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검사 강화

* 외부 단일장애지점, IT위탁·연계서비스 및 SW 공급망 등에 대한 인식·통제 등

□ 규제변화 및 신규 IT기술 등 도입 관련 리스크 중점 모니터링

- IT신기술 도입 및 연계 서비스 증가 등으로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는 신규 IT리스크를 심층 분석·점검하여 중점 대응
- 성능관리, 비상대책,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회사가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·확인하여 금융권 정착 유도

<가상자산감독국>

□ 이용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

-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의 차질 없는 시행(7.19일)을 위해 사업자의 자체점검 지원, 현장컨설팅, 규제 시범적용 등을 추진
- 국회·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(2단계 법안)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, IOSCO·FSB 등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 도모

□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방안 수립

-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위험요인, 사업자의 재무·영업현황 등을 파악·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 마련
- 단계별 입법 계획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

□ 효율적인 검사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

-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하되, 이용자보호 수준 등을 반영해 검사주기를 탄력 조정

- 법령상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운영하되,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

<가상자산조사국>

□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

-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수행에 필요한 매매자료 추적체계 구축을 지도하고, 자체 감시시스템 구축을 유도*

* 불공정거래 유형별 상시감시 및 감리절차, 감시조직 마련, 전산시스템 구축 등

- 온·오프체인 혐의거래를 효율적으로 추적·분석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*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

* 24시·365일 거래, 동일 가상자산의 국내·외 다수 거래소 복수 상장 가능 등

□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상시감시 및 중요사건 신속 조사

-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, 주요 피해사례, 유의사항 등은 사안에 따라 소비자경보 발령을 하는 등 투자자에게 적극 전파
- 온라인·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*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 착수한 후 엄중 대응

* (온라인) 구인구직 커뮤니티, 피해자 카페모임,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
(오프라인) 리딩방 회원가입, 신고센터 제보 분석, 온체인데이터 추적결과 등